



일본, 캔 재활용률 80% 넘어
철제·알루미늄 모두 상승

일본에서 판매되는 철제와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지방 정부의 90% 이상이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등 산업 폐기물 재활용이 확고하게 뿌리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철제 캔 재활용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일본의 철제 캔 재활용률은 전년도 보다 1.0% 포인트가 높아진 85.2%로, 4년 연속 80%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알루미늄 캔 재활용협회도 지난해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률이 전년 대비 2.2% 포인트가 상승한 82.8%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우주인용 無알콜 맥주 개발
특수 플라스틱 포장 계획

러시아 과학자들이 우주 비행사들을 위해 알콜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개발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특수 맥주가 우주공간에서 한방울도 새지 않도록 특수 플라스틱 봉지로 포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농업과학원은 우주에서 장기 체류하는 우주 비행사들의 기분을 북돋워 주기 위해 특별히 비타민과 미네랄을 첨가한 무(無)알콜 맥주를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무알콜 맥주는 당초 구조활동 종사자들이 갈증이 날 때 구조작업을 망치지 않으면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됐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무알코올 맥주가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알코올 성분이 전혀없는데도 불구하고 긴장을 해소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우주인들을 위한 이상적인 기분전환 음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2006년 PVC시장 7백17만톤
PVC 포장시장, 10억달러에 그칠 듯

미국 PVC(polyvinyl chloride) 수요가 2006년에는 1백58억 파운드(약 7백17만톤)에 이를 것으로 컨설팅 회사인 프리도니아 그룹이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 PVC 포장시장은 포화상태로 접어들면서 매년 2.2% 증가율을 보이며 오는 2006년에는 10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도니아의 2006년 PVC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PVC시장은 양적으로는 매년 3.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금액면에서는 매년 6.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내 건축경기가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올해 3/4분기부터 경기호조와 함께 건축경기 호황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의회, 유전자조작 표시 강화
미국, EU간 갈등 심화

유럽의회는 지난 달 3일 유전자조작(GM) 성분이 함유된 모든 식품을 판매할 때 포장지에 GM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 이상 GM 성분이 포함된 식품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한 현행 제도를 강화시킨 것이며, 식품 유통과정에서 GM 성분을 쉽사리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도 명문화했다. 그러나 GM 사료로 키운 동물에서 생산된 우유나 고기, 달걀에 대해서도 GM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거부됐다.

유럽의회는 "이 법안이 소비자들에게 GM 식품의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라앉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은 "GM 식품이 건강에 해롭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이 법안으로 한 해 3억 달러 규모인 미국산 GM 농산물의 EU 수출 길이 막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GM 농산물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EU간 갈등이 깊어지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광고를 할 때 GM 식품 여부를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포장지에 표시하는 것은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유럽, PE수요업체 가격인상 반발
7월 물량 톤당 1백유로 인상

유럽의 폴리에틸렌(PE)수요업체들이 7월분 가격 인상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케미칼위크 최근호가 보도했다.

유럽 PE 생산 기업들은 7월 들어 모든 품목의 폴리에틸렌에 대해 1톤당 1백 유로 정도의 가격 인상이 있을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가격은 6월에 톤당 60유로가 인상돼, 현재가격이 9백~9백20유로



에 달하고 있다.

유럽의 유화업계 전문가들은 폴리에틸렌 계열 품목의 가격은 톤당 75~80유로 수준의 인상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수요감소가 아시아 시장을 침체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PE가 유럽에서만 계속 고가로 판매된다면 중동의 생산자들이 유럽으로 수출을 확대할 것이며 이는 유럽의 PE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럽 PE 가격은 아시아 지역보다 톤당 1백 달러 정도 높은 것이 적정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7월 초 현재 가격 차이가 톤당 1백90달러로 크게 벌어진 상태다.

아시아 지역의 PE가격은 5~6월 동안 톤당 5백90~6백 달러로 약세를 나타낸 바 있다.

유럽의 PE생산자들은 이미 6월에 톤당 50유로 정도 가격을 인상해 톤당 가격이 8백20~8백50 유로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7월에는 톤당 1백 유로만큼의 추가 인상을 예고한 바 있지만 계절에 따른 수요 감소로 추가 가격은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본, 3社 PS사업통합

PS 수요 감소 따른 비용절감으로 합병

일본이 석유화학 기업인 三菱화학, 旭化成, 出光石化 등 3社가 폴리스타이렌(PS) 사업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PLATTS에 따르면 이들 3社는 PS 사업을 합병키로 결정하고 오는 10월 1일 합작법인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합작기업의 총 생산능력은 연간 53만톤에 이

를 것이며, 이는 일본 내 PS 생산능력의 4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신설법인 지분은 旭化成이 45%를 소유해, 최대주주가 될 전망이다. 三菱, 出光石化가 각각 27.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出光石化와 제휴관계에 있는 대일본인크 화학(DIC)은 이번 합작회사 설립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의 합병업무 관계자는 "최근 가전을 중심으로 일본 내 PS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비용절감이 3사의 PS 사업 합병 배경" 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유니팩 2003년 2개사 재편 통합 1백억원 효율 달성 목표

日本제지와 大昭和제지의 공동 지주(持株)회사 「日本유니팩홀딩」은 2003년 4월을 목표로 그룹회사를 양지와 판지사업의 2社로 재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판지사업으로는 日本판지가 大昭和제지의 판지사업과 東北제지를 산하에 두고, 새로운 「日本大昭和판지」가 발족한다.

판지新회사는 도쿄 도내에 본사를 두고 자본금은 아직 미정이다. 매상은 약 1,450억 엔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원수는 2백30명(생산자회사는 1천5백명)이다.

5년 후를 목표로 현재 1천7백30명인 그룹인원을 1천2백명까지 축소할 예정이다.

관리비나 물류비 등 여러 경비의 삭감에 따라 1백억원의 합리화 효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은 아직 유니팩이 연결 자회사인 日本판을 주식교환에 의해 완전 자회사로 한다.

日本판지는 4개의 생산공장을 분해해 자회사로 하고 그룹인 東北제지를 생산 자회사로 한다.

게다가 大昭和제지의 본사공장 吉永사업소, 日本판지 공판과 각각 합병한다. 일본판지는 9월 하순에 상장폐지 된다.

이제까지 양지판매의 「日本紙共販」이 취급되고 있는 백판지의 영업도 양도한다. 이에 따라 산하에 총 6개의 생산 자회사를 가진 종합판지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양지사업으로 발족하는 新「日本제지」의 白老공장에서 생산하는 골판지원지와 日本大昭和판지 그룹에서 생산하는 양지에 관해서는 서로 판매를 위탁한다.

일본, EL라이너 채용 확대
환경대책 효소 작용으로 품목 확대

일본의 林永乳業은 아이스크림 운송용 골판지상자에 「EL라이너」를 작년부터 채용해 큰 효과를 얻은 데에 힘입어, 금년 적극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L라이너는 특심지를 베이스에, 표면을 외장용 라이너모양으로 착색, 인쇄적성을 개선한 것으로 평량은 1백20g/m²이다.

林永乳業은 이것을 이면 라이너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C-160을 EL라이너로 변경한 것으로 대상 품목은 「피노초코아소트」(판매가 5백엔)이다.

2001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약 25만 케이스를 사용한 데 이어 2002년도는 대상품목의 확대를

피할 방침이며, 4월부터 「아몬드스틱」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전량, 이면 라이너가 EL인 것이다.

林永乳業의 EL라이너 채용의 특징은 합리화만이 목적이 아니라 환경대책의 요소가 크다는 것이다.

林永乳業은 환경을 중시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모두 후생노동성(厚勞省)의 HACCP(총합위생관리과정)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골판지상자는 지분(紙粉)에 의한 제품 및 환경오염이 있기 때문에 공장 내에는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지난해에 中京공장(빙과공장)에 토모그로부터 환경대응과 합리화목적으로 EL라이너에 관한 제안이 있었다.

林永乳業은 즉시 식품종합연구소에서 각종시험을 실시했으나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채용이 됐다.

林永乳業은 토모그와는 다른 품목으로의 거래는 있으나 「피노초코아소트」는 他社가 케이스를 납입하고 있으며 게다가 처음 사용하는 원지이고, 테스트 채용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전량을 바꾸진 않았다.

이 채용이 있을 즈음은 他社로부터 특심지 등의 제안이 있어, EL라이너와 특심지를 비교한 결과 EL은 특심지보다 지분(紙粉)이 적기 때문에 林永乳業은 EL을 선택했다.

채산적으로는 특심지는 EL보다 매우 유리하나 굳이 EL을 채용한 것은 林永乳業이 환경대응을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본사재부에서는 “통상 환경을 중시하면 코스트 상승이 많으나, EL은 환경, 코스트 양면에서 메리트가 있으며, 색도 종래의 외장용 라이너와 비교해도 거의 손색이 없다”고 높게 평가했다. [K]